지상법석 ★

우주의 주인공 됩니다"

그러면 외도(外道)는 무엇이냐?

비비상천(非非上天)까지 올라가도 도로 미끄러지고 도로 미끄러지고 하게 됩니다.

왜? 제 고집이 있어서 산돼지 고집을 가져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는 생각이 좀 쉬었다고, 아는 경계가 좀 나타났다고 거기에 전도(轉倒)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말씀도 안듣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도로 미끄러져서 지옥에 가서 쳐박히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불법에 의거해서 수다원과에 들면 다시는 타락없어

비유를 들자면 부처님 법을 따라 수다원과를 증득(證得)하는 것이 유리컵을 다섯 개 갖다 놓고 장마통에 시뻘겋게 뒤집힌 물을 컵 하나에 담아놓고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 나절에 보십시오.

맑게 가라앉았지요.

부처님이 보시고 80%가라 앉은 것, 이것을 옆의 컵에 "맑은 물만 옮겨 담아라"하셔서 부처님 말씀따라 옮겨 담았습니다. 또 하루를 두고하여 네번 옮겨야, 이건 암만 흔들어도 뭐 가라앉을 것이 없으니까 깨끗하지요.

그런데 외도들은 가라앉은 여기에, 찌꺼기와 같은 안다는 생각에 집착이 되어 가지고, 가라앉은 맑은 것만 옮기라고 해도 곧이 안듣고 그냥 이걸 쳐먹던 버릇을 안 버려서 흔들어 출렁거리면 도로 뒤집히고, 도로 쳐박히고, 그래서 지옥에 도로 쳐박히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안받아들여요.

자기 아는체 하는, 말하자면 다시 출렁거려 들뜬 마음이 앞서 가지고 안듣습니다.

그러니까 산돼지라.

산돼지 잡아다 집에서 길들여 보십시요. 아주 애 먹지요.

모든 중생들이 산돼집니다.

여러분들도 산돼지 고집 가졌다간 큰 일나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너희도 나와같이 이렇게 해봐라. 그럼 나와 똑 같이 되느니라. 온 우주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따로 내몸이라고 여겨 집착할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가 내 것이므로 부처님이 천백억화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부처님은 임의자재하는 몸을 가지셨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여러분들은 갖추지 못한 불구자요, 장애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한 것 같지만 다 장애자이니, 장애자로 먹고 사시니 장애자분들 깔보지 말고 조금씩 시킬 일 있으면 시켜서 같이 살도록 해야되요.

시주물건(施主物件)의 모든 것, 여러 곡식으로 지은 주식과 부식의 나물, 양념, 차담으로 잡숫는 것, 물 마시는 것, 속가 신자들이 먹는 동식물류의 식품류인 모든 것을 먹는 것은 이 몸 안의 많은 중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걸 관(觀)하고 먹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몸안의 중생들이 죽으니까, 자비스러운 뜻으로 대(大)를 위해서 소(小)를 베푸는 뜻으로 살기 위함이며, 바른 것을 위해서 살므로서 부처님 법을 위해서 살므로서 옳은 일이 되는데, 부처님 법만을 실천하면 옳은 일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죄(罪)가 되요.

그렇지 않으면 죄(罪) 안짓고는 못산다고 여러 경전에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남섬부주 이 지구상의 주위 환경은 니까, 아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라 귀신이 어딨나? 모두들 그럽니다.

그래 부처님 법에 입지(立志)를 세우신 분들도 공기 중에 있는 많은 균들이 침입해 오는 유행병균, 감기로 인해서 유행병이 많이 있지요?

그때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 가시면 뜨거운 물에다 소금을 타 가지고, 양치질을 하셔서, 방어하는 균들을 도와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외세에 밀려 가지고 많이 앓게 되므로, 바른 생각내는 공부를 못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분을 찾아 가셔서, 주사도 맞고 치료를 받으셔서, 외세를 쫓아내어 아픔을 고치셔, 공부해 가시라 이말입니다.

이와같이 부처님은 '장수멸죄경'에서 건강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몸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주변에 사는 한량없는 수의 귀신이 있는데, 천상 세계로 올라갈수록 죄를 적게 짓고 사는 환경이 되어 있으며, 극락세계 환경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다 그러셨습니다. 또 부처님 가르침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구품연대를 졸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 앞에 축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품상생 돈오무생(頓悟無生) 법인지발원(法印之發願)- 문득 깨달아서태어남이 없는 법인을 발원하나이다.'

나지 않는다면 어딥니까?

내 마음이 온 법계에 가득 차서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이치를 증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정토 가려면 깨달음 수행통해 구품연대 졸업해야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것도 여러분이 모자라는 것을, 그런 깨닫는 수행의 환경에 가서, 모든 것을 수학(修學)한 연후에 졸업을 하고서야 임의자재하는 이런 분상(分上)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복을 자기가 찾아쓰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법화경〉에 "이 사실, 곧 이 실상(實相)을 아느냐? 모르면 못 경험했으면 이 깨달음을 경험하여라"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경계의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 몸안에 있다고 하고, 눈을 통해서 내다보고, 귀를 통해서 들고, 코, 혀, 몸, 생각에 끄달리는 사실을 실상이라고 여기고 산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러주신 계목(戒目) 곧 법로(法路) 법도(法道) 경(經)에 따라 자꾸 그릇을 크게 해서, 온 법계를 다 집어 삼키셔야 합니다.

뭘 집어 삼키느냐.

본래 갖추어지신 건데.

마음에 대해서 사무치는 말을 해 놓았느냐?

전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전부 들뜬 귀신의 소립니다. 아는체하는 마음이 앞서있는 소리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 여기 한 물건이라는 것도 한 물건이라 하면 억지로 갖다 지은 말로 이름을 지어 붙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화두로 하셨잖아요.

다겁생 익힌 업장 벗어나야 본심나타나 아는척 하면서 자기 고집만 세우면 외도

숨만 쉬어도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중생이 공기 중에서 코로 해서 빨려 들어가며, 가지가지 일로 죽게 되거나 싸움하게 하니 죄가 됩니다.

싸움판을 벌렸으니, 아수라판을 벌렸으니 죄가 됩니다.

여러분은 싸움시키기를 좋아하는 아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수라도 되고 천사도 되고 별거 다 됩니다.

아수라 마음 내어 실천하면 아수라 되고 별거 다 되는 겁니다.

왜냐? 공기 중에 있는, 많은 가만히 있는 중생들을 몸안으로 들이 몰아 가지고, 안에 있는 방어균하고 싸움을 시키니까 아수라 아닙니까?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잠시도 못 버려서, 일체 모든 것에서 내니, 너니 하는 생각을 떠나지 못하여, 이 몸뚱이에 꽉 집착을 해서, 나로 삼아서 내게 해가 되는 것은 남이라고 해서 제 몸 편에만 들어서 응원하니, 응원하는 게 싸움시키는 것입니다.

삿된 입지(立志)로 사니까, 살려 하게 다루는 것은 상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한 것처럼 육신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육신을 잘 다스려 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육신의 병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의 상태가 분명하다면 참선병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 생애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도를 이루겠다는 한 생각 뿐이라면 아무리 혼탁한 분명속에 버려져도 참선병은 걸리지 않는다. 우리의 오관과 의식을 통하여 쌓이는 문제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된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가다가 선만 그려져 있어도 바둑판으로 보일 것이며, 돌만 보아도 바둑돌로 보일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눈에는 술집간판만 눈에 띌 것이며,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서점만 눈에 띌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부와 욕망에 휩쌓여 있어도 진정 도를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산만 보일 것이며, 문명의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새 소리만 들릴 것이다. 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이다.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만년후라도 세상은 그대로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예토라도 내가 그 곳에 있음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나의 깨어있는 생각과 행위로 말미암아 그 곳이 정토가 됨을 명심하자.

〈영남대 의대교수〉

본란의 필자가 바뀝니다.

다음주부터 고려대 물리학과 양형진 교수가 집필합니다.

그 동안 본란을 이끌어주신 김성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⑰

김 성 규

참선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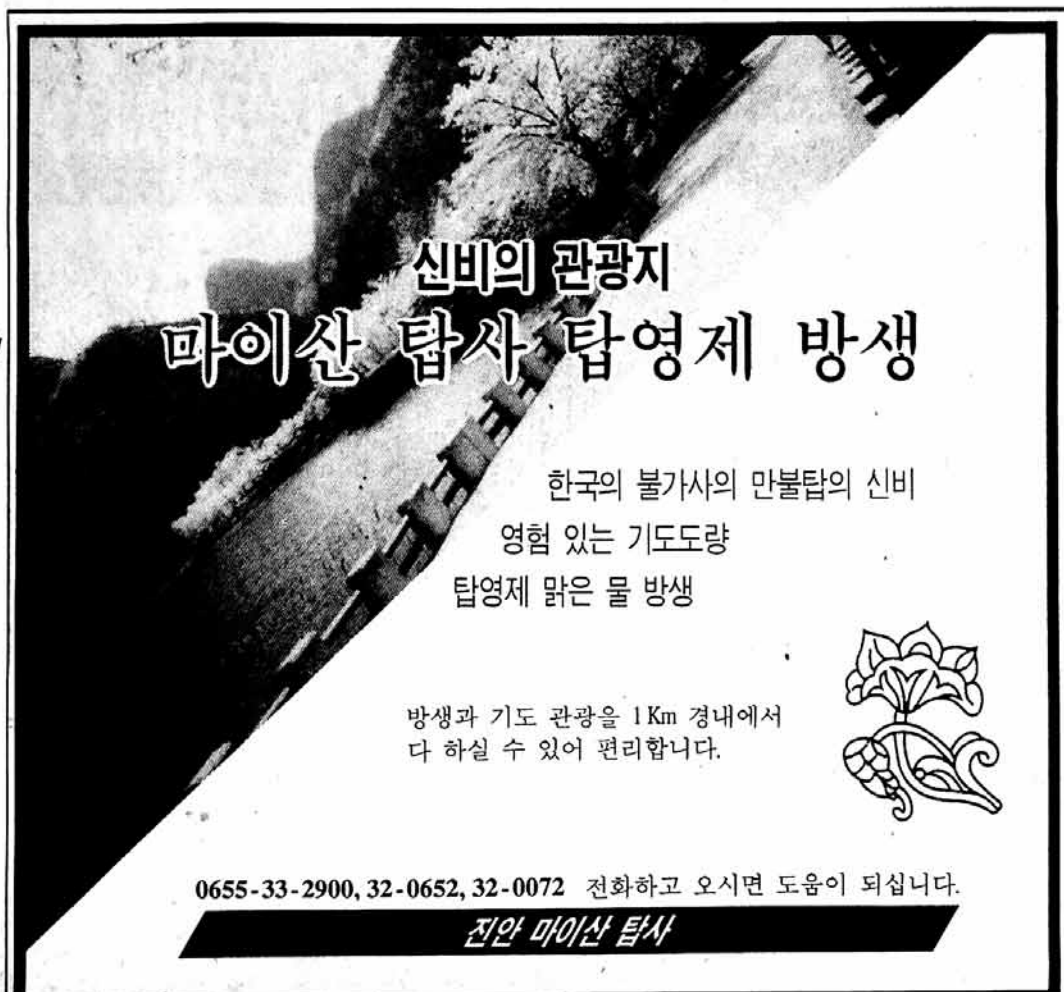
계율이라는 도덕적 기준을 토대로 하여 선정이라고 하는 종교적 체험을 통하여 혜(慧)라고 하는 생명 본래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불교를 믿고 따르는 수행자나 신도들의 기본 원칙이나 계율에 철저하지 못하면 오히려 몇 생동안을 참선을 한다고 다리를 틀고 앉아 있어도 목적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가슴 속에 탐욕만 가득 채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조과선사와 백낙천의 대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고을 현감으로 부임한 백낙천이 평생을 나무 위에서 수행만 하고 있는 유명한 조과선사를 찾아가 불교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조과선사는 나무 위에서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악을 없애며,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백낙천은 그것은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조과선사는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지만 팔십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네" 하였다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님을

'道 이루겠다' 한 생각 뿐이면 병 안생겨
계율 철저하지 못하면 가슴엔 탐욕만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훌륭한 제도나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교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님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불교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한다고 여기는 계율을 자신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나는 얼마나 진리를 추구하는 문제에 철저한가?(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나는 얼마나 청빈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도둑질을 하지 말라) 나는 얼마나 순수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음행을 하지 말라)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거짓말을 하지 말라) 나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술을 먹지 말라) 이러한 계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앉으나 서나, 세속에 있으나 세속을 떠나 있으나 그대로 선정에 들어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 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치선병비요경(治禪病秘要經)에 보면 참선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정에 들어 가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가지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것을 참선병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외부의 인연에 의하여 마음이 산란하여 선정에 들 수 없을 때, 계율을 범하거나 음악이나 잡기등 오락에 빠져 선정에 들 수 없을때, 공포스러운 마음이 일어나 선정에 들 수 없을때, 몸에 대한 욕심이나 성욕이 일어나 선정에 들 수 없을 때를 참선병이라 하였다. 또한 〈수습지관선요〉에서는 참선의 방법이나 참선 중의 마음가짐이 옳지 않아서 일어나는 병을 참선병이라 하고 있다.

예를들어 벽이나 기둥에 기대어 자세를 허물던가 또는 옆으로 드러눕던지 하면 마음이 나태해져 병이 마음의 빈틈을 노려 몸속으로 침투하여 등뼈나 여러 곳 뼈에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간, 폐, 심장, 신장, 위장들을 다쳐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고 부질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육신이 병이 들거나 허물어져 버리면 아무리 도를 이루고 싶어도 도를 닦아 나타낼 그릇이 없는 것과 같아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상처를 신중하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펴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기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업과 문화, 페사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